

## 검도수련자들의 운동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박동훈 · 이세형(제주대학교)

### A Study of Motivation about Participating in Kumdo

Park, Dong-Hun, · Lee, Sei-Hyoung(Ch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iscover why people participate in Kumdo by researching sex, age, education level, participation frequency, participation period, exercise time, the reason why people do Kumdo. Subjects of this study have done Kumdo practice in S city Kumdo school. The number of people was 420 and they are adults more than 19 years old. We analyzed 406 except false entries and insincere 14 respondents. Questionnaire was made up of 34 questions about sports participation with 8 questions about basis statistical characteristic. We executed one-way ANOVA to verify average gap among basis statistical characteristic and participation frequency, participation period, motivation of participating in Kumdo by time zone. Significance level of all statements is  $p < 0.05$ . We got following conclusion. 1) Mans came out higher than woman in mental pleasure factor, and it was no alternative difference in other factors. 2) Technology development factor points was high in above 41-year-old, and pleasure factor appeared high in 31-40 age, sense of accomplishment was high 21-30 age, health and physical strength factor are high below 20 years old, 20-year-old low displayed high point in external ostentation 3) Motive is displayed high as education level is higher. 4) Motive's point including internal and external is high as people participate in Kumdo more frequently per a week. 5) Motivation of participating exercise according to period : technology development factor is high in 1-3 year exerciser, pleasure factor is high below 1 year exerciser, points of sense of accomplishment factor appeared high in 3-6 year exerciser, and it was no difference statistically. Condition, social intercourse, health and physical strength factor are high in 3-6 year exerciser. External ostentation is high in 1-3 year exerciser. And there is no

difference by age. 6) Motive points of 8-9 time zone's participation group appeared high than 7-8 time zone's participation group and 6-7 time in the morning. Time zone displayed various by motivation. 7) Starting reason : People who participate kumdo for social intercourse get high points than group which participate for leisure or for etc. 8) Participating reason : technology development, pleasure, sense of accomplishment factor are high in Because of wanting exercise. Condition and health and physical strength factor are also high in Because of wanting exercise. Social intercourse factor is high in to get along with people. External ostentation is also high in to get along with people.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검도는 예로부터 인간의 심신을 수련하는 무예로써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수양과 심신수련을 통한 인격도야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지만, 동네 아이들이 모여 나무막대기로 칼싸움 놀이를 하던 것이 바로 검도의 원형이라 할 수도 있겠다(이종립, 1995).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칼싸움 놀이는 물론 그것이 본능적이고 모방적 행동의 표출일지라도 그 자체의 오락성과 유년시절의 향수 그리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순치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이러한 칼싸움은 상상의 목적이 아닌 심신의 수련을 위한 교육적 무희로, 다시 체육 경기로 자리를 잡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종립, 1995). 검도는 정신 수양, 신체 단련, 기술 연마의 세 가지 수련 목적으로 정신 수양을 통한 신체 단련을 으뜸으로 하는 단순한 기능적인 측면만의 검술이 아닌

정신 수양을 강조하는 무도로서의 성격을 갖는 운동 종목이다(김영달, 1978). 현대의 검도는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서 경기화되어 있다. 이것은 주어진 경기 시간과 제한된 경기장에서 상대자와 대적하여 극히 짧은 시간에 공격과 방어로써 승부를 결정해야 하는 운동이다. 때문에 고도의 기술 변화와 수련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빠른 판단과 민첩성, 과감성이 필요하다(김재일, 1994). 결국 무도수련을 통한 인간완성은 겸손하고 양보와 존중을 갖게하는 인격형성의 수련이며, 이것이 무도인의 참모습으로 지도자가 지향해야할 방향이다(김인범, 2004). 생활체육으로서의 검도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전문적인 스포츠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학교체육과는 달리 개인의 생활 영역 안에서 각자의 취미와 환경, 여건에 따라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의 하나이다. 검도는 운동과 스포츠가 주요 활동이면서도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수련 과정에서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올바른 교양적 태도를 육성하는 역할도 겸비하고 있다. 또한, 검도는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검도 수

련의 진행 프로그램은 현대인의 건강증진과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서 누적된 스트레스 해소에 더 없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검도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건강한 삶을 유지·증진시키는데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녔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를 파악하여 검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고, 검도에 대한 참여 동기를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2. 연구의 목적

검도는 학교체육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체육으로서도 널리 보급되면서 대중 스포츠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보면서 즐기는 스포츠가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스포츠로서 심신을 수련하는 데는 검도만한 운동도 드물 것이다. 더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체력에 맞게 상대와 겨루기를 하는 재미는 현대인에게 신선하면서도 옛 것의 흥미하고 회고해 볼 수 있는 온고의 의미까지 함께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운동참여자의 보다 근원적인 참여동기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생활체육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즐기는 검도 인구의 저변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과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검도수련 참가자의 기초통계학적 특성별 운동 참여

동기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검도수련 참가자의 참가정도별 운동 참여 동기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검도수련 참가자들의 참가이유별 운동 참여 동기는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대상은 S 시 검도장에서 검도수련을 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추출절차는 S시 지역을 동, 서, 남, 북으로 표집틀(sampling frame work)을 작성한 다음 남·여 4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수집된 420부 중 부실기재 및 불성실한 응답자 14부를 제외한 406부가 통계처리에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검도 수련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           |             |            |             |
|-----------|-------------|------------|-------------|
| 20세 이하    | 12 (3.0%)   | 3 (0.7%)   | 15 (3.7%)   |
| 21세-30세이하 | 194 (47.8%) | 76 (18.7%) | 270 (66.5%) |
| 31세-40세이하 | 74 (18.2%)  | 13 (3.2%)  | 87 (21.4%)  |
| 41세 이상    | 29 (7.1%)   | 5 (1.2%)   | 34 (8.4%)   |
| 국졸이하      | 2 (0.5%)    | 0 (0%)     | 2 (0.5%)    |
| 중졸        | 1 (0.2%)    | 2 (0.5%)   | 3 (0.7%)    |
| 고졸        | 73 (18.0%)  | 38 (9.4%)  | 111 (27.3%) |
| 대졸이상      | 233 (57.1%) | 57 (13.8%) | 288 (70.9%) |

##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검도수련 참가자들의 운동참여 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의 기초 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 8문항, 스포츠 참여 동기에 대한 34문항 등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1) 배경변인

본 연구의 배경변인으로 설정된 기초 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 연령, 교육수준의 3개 요인이다. 성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연령은 응답자의 현재 나이를 조사한 다음 원 자료를 그대로 분석에 이용한다.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조사하였다.

### 2) 검도 참여정도와 참가 이유

검도에의 참가정도와 참가빈도, 참가기간 그리고 참가시간 등으로 각각 1문항씩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한다. 참가이유는 검도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와 현재 검도를 하는 이유 등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스포츠 참여동기

스포츠 참여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Vallerand 등(1992)의 SMS-28(Sport Motivation Scale-28)과 Wessinger와 Bandalos(1995)의 LIM(Leasure Intrinsic Motivation)을 기초로 정용각(2002)이 개발한 스포츠 참여 동기 검

사지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동기의 변인들은 Vallerand 등(1992)이 분류한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의 3분류에 의한 근거로 하였으며 각 요인별 하위요인과 문항의 구성 및 본 연구 신뢰도 분석은 <표 2>와 같다.

표 2. 스포츠 참여동기 하위요인 구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      |        |       |
|------|--------|-------|
| 내적동기 | 기술발달   | .6634 |
|      | 즐거움    | .8356 |
|      | 성취감    | .6849 |
| 외적동기 | 컨디션    | .6803 |
|      | 사교     | .6018 |
|      | 건강과 체력 | .6119 |
|      | 외적과시   | .7238 |
| 무동기  | 무동기    | .5141 |

## 3. 연구절차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각 요인의 측정 은 시설 관리자의 허락 하에 피험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 연구자가 우편 혹은 제 3자의 도움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전에 검사의 취지와 방법에 대해 관리자에게 문서로 설명을 한 후 자기평가 기입방법(Self-administration method)에 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측정된 자료는 기초 통계학적 특성과 참가빈도, 참가기간, 참가시간별로 분류한 운동 참여동기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도표화하였다. 그리고 기초 통계학적 특성과 참가빈도, 참가기간, 참가시간별 운동 참여 동기의 평균차를 검증할 위해 일원 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검도 수련자의 기초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운동참여 동기 차이

1) 성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표 3. 성별 운동참여 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

|          |           |       |      |       |      |       |      |         |
|----------|-----------|-------|------|-------|------|-------|------|---------|
|          | 기술발달      | 14.52 | 3.22 | 14.35 | 3.48 | 14.48 | 3.28 | 0.190   |
| 내적<br>동기 | 즐거움       | 19.98 | 3.47 | 18.88 | 3.70 | 19.71 | 3.55 | 7.076** |
|          | 성취감       | 10.81 | 2.50 | 10.45 | 2.54 | 10.72 | 2.51 | 1.478   |
|          | 컨디션       | 19.97 | 3.19 | 19.57 | 3.30 | 19.87 | 3.22 | 1.117   |
| 외적<br>동기 | 사교        | 12.66 | 3.00 | 12.26 | 3.09 | 12.56 | 3.02 | 1.253   |
|          | 건강과<br>체력 | 13.93 | 2.63 | 13.86 | 2.89 | 13.91 | 2.69 | 0.044   |
|          | 외적과시      | 9.38  | 3.24 | 9.32  | 3.05 | 9.37  | 3.19 | 0.031   |
|          | 무동기       | 8.96  | 3.34 | 9.55  | 3.36 | 3.10  | 3.35 | 2.252   |

\*\*p<0.01

검도 수련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내적동기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자 수련자들은 내적동기의 하위요인인 기술발달, 즐거움, 성취감 요인에서 모두 여자 수련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성별 내적동기에 대한 유의수준을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즐거움 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외적동기와 무동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연령에 따른 운동참여동기 차이

검도 수련 참가자가 연령별 내적동기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발달은 41세 이상, 21-30세, 31-40세, 20세 이하 순으로 나타났고, 즐거움은 31-40세, 41세 이상, 21-30세, 20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고, 성취감은 31-40세, 21-30세, 41세 이상, 20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연령별 외적동기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컨디션, 건강과 체력은 41세 이상, 31-40세, 21-30세, 20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사교의 경우에는 21-30세, 31-40세, 41세 이상, 20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적과시의 경우는 20세 이하, 21-30세, 41세 이상, 31-40세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연령별 무동기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20세 이하가 가장 높고, 21-30세, 31-40세, 41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연령별 내적동기의

표 4. 연령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

|          | 동기    | 20세   |      | 30세   |      | 40세   |      | 50세   |      | F      | Sig.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
| 내적<br>동기 | 기술발달  | 13.40 | 4.22 | 14.55 | 3.19 | 14.42 | 3.31 | 14.55 | 3.49 | 0.598  | .617 |
|          | 즐거움   | 15.26 | 4.57 | 19.56 | 3.51 | 20.72 | 3.03 | 20.32 | 3.08 | 11.49  | .000 |
|          | 성취감   | 8.50  | 2.76 | 10.82 | 2.50 | 10.83 | 2.30 | 10.57 | 2.63 | 3.984  | .008 |
| 외적<br>동기 | 컨디션   | 16.00 | 4.82 | 19.69 | 3.19 | 20.71 | 2.69 | 20.91 | 2.27 | 11.473 | .000 |
|          | 사교    | 10.66 | 3.22 | 12.71 | 3.05 | 12.62 | 2.93 | 12.06 | 2.68 | 3.278  | .021 |
|          | 건강과체력 | 12.33 | 3.84 | 13.88 | 2.72 | 13.90 | 2.26 | 14.90 | 2.65 | 3.278  | .021 |
|          | 외적과시  | 10.06 | 3.89 | 9.54  | 3.20 | 8.70  | 2.96 | 9.41  | 3.27 | 1.725  | .161 |
| 무동기      |       | 11.13 | 3.99 | 9.24  | 3.47 | 8.39  | 2.89 | 8.88  | 2.71 | 3.383  | .018 |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별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표 4>와 같이 기술발달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즐거움과 성취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검도 수련 참가자의 연령별 즐거움과 성취감에 대한 구체적인 유의수준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20세 이하가 41세 이상 집단보다 즐거움과 성취감 점수가 유의하게 ( $p < 0.05$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외적동기에 대한 평균차이를 검증

하기 위하여 연령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디션과 건강과 체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 < 0.05$ )가 있었고, 사교, 외적과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검도 수련 참가자의 컨디션과 건강과 체력에 대한 유의수준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20세 이하 집단이 40세 이상 집단보다 컨디션과 건강과 체력의 점수가 유의하게 ( $p < 0.05$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교육수준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

|          | 동기    | 초·중·고 |      | 대·석·박 |      | 대학원   |      | 전문대   |      | F     | Sig.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
| 내적<br>동기 | 기술발달  | 5.50  | 2.12 | 15.00 | 2.64 | 14.56 | 3.30 | 14.53 | 3.20 | 5.240 | .001 |
|          | 즐거움   | 15.00 | 2.82 | 19.00 | 3.60 | 18.87 | 4.20 | 20.05 | 3.20 | 4.237 | .006 |
|          | 성취감   | 5.50  | 0.71 | 9.00  | 0.00 | 10.88 | 2.58 | 10.70 | 2.46 | 3.420 | .017 |
| 외적<br>동기 | 컨디션   | 17.50 | 3.53 | 20.66 | 0.57 | 19.45 | 3.56 | 20.02 | 3.07 | 0.752 | .522 |
|          | 사교    | 12.47 | 2.86 | 12.43 | 3.30 | 13.34 | 3.65 | 12.64 | 3.10 | 0.752 | .522 |
|          | 건강과체력 | 12.50 | 4.94 | 13.00 | 1.41 | 13.79 | 3.15 | 13.98 | 2.48 | 0.412 | .744 |
|          | 외적과시  | 4.00  | 0.00 | 7.66  | 3.05 | 9.63  | 2.90 | 9.32  | 3.29 | 2.455 | .063 |
| 무동기      |       | 11.50 | 9.19 | 7.33  | 0.57 | 9.70  | 3.40 | 8.87  | 3.28 | 2.226 | .085 |

검도 수련 참가자의 연령별 무동기에 대한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별 무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별 검도 수련 참가자의 무동기에 대한 유의수준을 검증하기 t-test를 실시한 결과 20세 이하 집단이 21-30세 집단보다 무동기 점수가 유의하게( $p < 0.05$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교육수준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검도 수련 참가자의 교육수준별 내적동기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발달과 즐거움은 학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지만, 성취감의 경우에는 고졸, 대졸 이상, 중졸, 국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교육수준별 외적동기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디션과 건강과 체력은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의 점수가 높았고, 한편 사교와 외적과시는 고졸, 대졸 이상,

중졸, 국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교육수준별 무동기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내적 동기에 대한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수준별 내적 동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05$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별 외적 동기에 대한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디션, 사교, 건강과 체력, 외적과시 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무동기에 대한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별 무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검도수련 참여빈도 따른 운동참여 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

| 동기       | 구분    | 고졸이하  |      | 중졸    |      | 대졸이상  |      | 무동기   |      | F     | Sig.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
| 내적<br>동기 | 기술발달  | 15.02 | 3.67 | 14.42 | 3.04 | 13.32 | 2.93 | 8.00  | 1.20 | 4.057 | .003 |
|          | 즐거움   | 19.68 | 3.88 | 19.84 | 3.37 | 19.44 | 3.06 | 17.00 | 4.24 | 0.570 | .684 |
|          | 성취감   | 11.00 | 2.83 | 10.65 | 2.31 | 10.62 | 2.56 | 7.00  | 1.41 | 2.856 | .024 |
| 외적<br>동기 | 컨디션   | 19.73 | 3.60 | 20.02 | 3.10 | 19.62 | 2.49 | 16.50 | 2.12 | 0.778 | .540 |
|          | 사교    | 13.07 | 3.51 | 12.33 | 2.76 | 12.39 | 2.64 | 11.50 | 2.12 | 1.201 | .310 |
|          | 건강과체력 | 14.25 | 2.98 | 13.80 | 2.55 | 13.65 | 2.63 | 11.50 | 0.70 | 1.201 | .310 |
|          | 외적과시  | 10.25 | 3.67 | 9.02  | 2.81 | 8.96  | 3.33 | 6.00  | 2.82 | 4.586 | .001 |
|          | 무동기   | 8.91  | 3.33 | 9.04  | 3.23 | 10.55 | 4.08 | 8.5   | 4.94 | 1.878 | .113 |

## 2. 검도수련 참여정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 1) 검도수련 참여빈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검도 수련 참가자의 주당 참가빈도별 내적 동기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 발달과 성취감 요인은 거의 매일, 주당 2-5회, 주당 1회, 월 1-2회의 순 이었고 주당 검도 참가 빈도가 높을수록 기술발달과 성취감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움 주당 2-5회, 거의 매일, 주당 1회, 월 1-2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주당 검도 참가빈도별 외적 동기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과 체력과 외적과시 요인은 거의 매일, 주당 2-5회, 월 1-2회, 주당 1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컨디션 요인은 주당 2-5회, 거의 매일, 주당 1회, 월 1-2회의 순으로, 사교 요인은 거의 매일, 주당 1회, 주당 2-5회, 월 1-2회, 순으로 나타났다. 주당 검도 참가빈도가 높을수록 외적동기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주당 검도 참가 빈도별 무동기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동기는 주당 1회, 주당 2-5회, 거의 매일, 월 1-2회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주당 검도 참가빈도별 내적 동기의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술발달과 성취감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주당 검도 참가빈도

별 내적 동기 하위요인의 유의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내적 동기의 하위요인 즉, 기술발달, 즐거움, 성취감 요인이 모두에서 검도에 거의 매일 참여하는 집단이 주당 2-5회, 주당 1회, 월 1-2회 참여하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p < 0.05$ )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주당 검도 참가빈도별 외적 동기의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적 과시 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컨디션, 건강과 체력, 사교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주당 참가빈도별 무동기의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당 검도 참가빈도별 무동기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검도수련 참여기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차이

검도 수련 참가자의 운동기간별 내적 동기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발달 요인이 1-3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3-6년, 1년 이하, 6년 이상 순으로 나타났고, 즐거움 요인은 1년 이하, 3-6년, 6년 이상, 1-3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감 요인의 경우에는 3-6년, 6년 이상, 1-3년, 1년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운동기간별 외적 동기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디션 요인은

표 7. 검도수련 참여기간 따른 운동참여 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

| 동기    | 구분     | 1년 이하 |      |       | 1-3년 |       |      | 3-6년  |      |       | F    |     |
|-------|--------|-------|------|-------|------|-------|------|-------|------|-------|------|-----|
|       |        | M     | SD   | N     | M    | SD    | N    | M     | SD   | N     | 통계   | 유의성 |
| 내적 동기 | 기술발달   | 15.02 | 3.67 | 14.42 | 3.04 | 13.32 | 2.93 | 8.00  | 1.20 | 0.487 | .690 |     |
|       | 즐거움    | 19.68 | 3.88 | 19.84 | 3.37 | 19.44 | 3.06 | 17.00 | 4.24 | 0.400 | .753 |     |
|       | 성취감    | 11.00 | 2.83 | 10.65 | 2.31 | 10.62 | 2.56 | 7.00  | 1.41 | 0.933 | .425 |     |
| 외적 동기 | 컨디션    | 19.73 | 3.60 | 20.02 | 3.10 | 19.62 | 2.49 | 16.50 | 2.12 | 0.095 | .963 |     |
|       | 사교     | 13.07 | 3.51 | 12.33 | 2.76 | 12.39 | 2.64 | 11.50 | 2.12 | 0.752 | .522 |     |
|       | 건강과 체력 | 14.25 | 2.98 | 13.80 | 2.55 | 13.65 | 2.63 | 11.50 | 0.70 | 0.270 | .847 |     |
|       | 외적과시   | 10.25 | 3.67 | 9.02  | 2.81 | 8.96  | 3.33 | 6.00  | 2.82 | 1.964 | .119 |     |
|       | 무동기    | 8.91  | 3.33 | 9.04  | 3.23 | 10.55 | 4.08 | 8.5   | 4.94 | 1.349 | .258 |     |

3-6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다음은 6년 이상, 1년 이하, 1-3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도 3-6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다음은 6년 이상, 1년 이하, 1-3년의 순이었고, 건강과 체력도 역시 3-6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다음은 1년 이하, 1-3년, 6년 이상 순이었다. 외적과시는 1-3년, 6년 이상, 3-6년, 1년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운동참여 기간별 무동기는 6년 이상 참여해 온 집단이 9.6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다음은 3-6년, 1-3년, 1년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운동기간별 내적 동기의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동기간별 내적 동기의 기술발달, 즐거움, 성취감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운동기간별 외적 동기의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디션, 사고, 건강과 체력, 외적과시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운동참여 기간별 무동기에 대한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운동참여 기간별 무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검도수련 참여시간 따른 운동참여 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

| 동기    | 구분     | 1년 이하 |      |       | 1-3년 |       |      | 3-6년  |      |       | F    |       |       |
|-------|--------|-------|------|-------|------|-------|------|-------|------|-------|------|-------|-------|
|       |        | M     | SD   | N     | M    | SD    | N    | M     | SD   | N     | 통계   | 유의성   |       |
| 내적 동기 | 기술발달   | 14.19 | 3.24 | 14.20 | 3.07 | 14.93 | 3.17 | 14.36 | 3.35 | 14.95 | 3.52 | 0.843 | 0.499 |
|       | 즐거움    | 19.50 | 4.02 | 19.90 | 3.45 | 19.68 | 3.39 | 19.74 | 3.63 | 19.77 | 2.94 | 0.101 | 0.982 |
|       | 성취감    | 10.22 | 2.43 | 10.26 | 2.37 | 10.90 | 2.52 | 10.95 | 2.41 | 10.88 | 3.04 | 1.601 | 0.173 |
| 외적 동기 | 컨디션    | 19.91 | 3.80 | 20.00 | 2.59 | 19.48 | 3.86 | 20.04 | 2.87 | 19.72 | 3.01 | 0.443 | 0.777 |
|       | 사교     | 12.25 | 2.88 | 12.06 | 2.76 | 12.28 | 3.29 | 13.06 | 2.88 | 12.25 | 3.43 | 1.952 | 0.101 |
|       | 건강과 체력 | 13.64 | 2.75 | 13.49 | 2.30 | 14.10 | 2.94 | 14.09 | 2.65 | 13.81 | 2.76 | 0.778 | 0.540 |
|       | 외적과시   | 8.75  | 2.78 | 8.67  | 2.58 | 9.52  | 3.45 | 9.64  | 3.30 | 9.86  | 3.43 | 1.837 | 0.121 |
|       | 무동기    | 9.44  | 3.28 | 9.04  | 3.04 | 8.60  | 3.32 | 9.16  | 3.50 | 9.27  | 3.31 | 0.648 | 0.629 |

### 3) 검도수련 참여시간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차이

검도 수련 참가자들의 운동시간별 내적 동기는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술발달은 기타, 오후 7-8시, 오후 8-9시, 아침 7-8시, 아침 6-7시간대 순으로 나타났다. 즐거움은 아침 7-8시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기타, 오후 8-9시, 아침 7-8시, 아침 6-7시간대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취감 요인은 오후 8-9시, 오후 7-8시, 기타, 아침 7-8시, 아침 6-7시간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들의 운동시간별 외적동기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디션 요인은 오후 8-9시, 아침 7-8시, 아침 6-7시, 기타, 오후 7-8시간대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교요인은 오후 8-9시, 오후 7-8시, 기타, 아침 6-7시, 아침 7-8시간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과 체력 요인은 오후 7-8시, 오후 8-9시, 기타, 아침 6-7시, 아침 7-8시간대의 순으로 나타났고, 외적과시 요인은 기타, 오후 8-9시, 오후 7-8시, 아침 6-7시, 아침 7-8시간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들의 운동 시간대별 무

동기는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침 6-7시, 기타, 오후 8-9시, 아침 7-8시, 오후 8-9시 순으로 나타났다.

### 3. 검도수련 이유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 1) 검도수련 시작이유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 차이

검도 수련 참가자가 검도를 처음 시작한 주된 이유별 내적 동기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동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기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운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검도 시작이유별 외적 동기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디션 요인은 운동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여가를 위해서, 기타, 어울리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고, 사교 요인은 어울리기 위해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운동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기타 순으로 나타났고, 건강과 체력요인은 운동이 좋아서, 사

표 9. 검도수련 시작이유 따른 운동참여 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

| 내적 동기 | 기술발달 | 시작이유 |      |      |      |       |      |      |      |         |          | F    | Sig. |
|-------|------|------|------|------|------|-------|------|------|------|---------|----------|------|------|
|       |      | 즐거움  | 성취감  | 컨디션  | 사교   | 건강과체력 | 외적과시 | 무동기  | 기타   | 건강을 위해서 | 아울리기 위해서 |      |      |
|       | 13.9 | 3.41 | 15.1 | 2.96 | 13.9 | 2.03  | 13.8 | 3.65 | 12.8 | 4.38    | 4.589    | .001 |      |
|       | 19.1 | 3.29 | 20.3 | 3.56 | 18.9 | 2.61  | 18.9 | 3.31 | 18.9 | 4.40    | 3.052    | .017 |      |
|       | 10.2 | 2.44 | 11.2 | 2.34 | 12.0 | 2.16  | 9.62 | 3.06 | 9.69 | 3.30    | 2.108    | .079 |      |
|       | 19.6 | 3.49 | 20.3 | 2.95 | 18.8 | 2.41  | 19.0 | 3.38 | 18.8 | 3.84    | 2.108    | .079 |      |
|       | 12.2 | 3.14 | 12.8 | 2.83 | 14.7 | 2.69  | 13.8 | 3.65 | 11.2 | 3.37    | 3.582    | .007 |      |
|       | 14.0 | 2.74 | 14.1 | 2.50 | 14.1 | 3.29  | 11.1 | 2.64 | 12.3 | 3.10    | 5.208    | .000 |      |
|       | 9.13 | 2.98 | 9.57 | 3.19 | 12.8 | 2.47  | 9.00 | 4.50 | 8.00 | 3.29    | 3.824    | .005 |      |
|       | 9.55 | 3.44 | 8.59 | 3.03 | 10.0 | 4.65  | 11.7 | 4.83 | 10.2 | 3.87    | 4.057    | .008 |      |

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타,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고, 외적 과시 요인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운동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검도 시작 이유별 무동기는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좋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검도 시작 이유별 내적 동기의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술발달, 즐거움, 성취감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t-test를 실시한 결과, 검도가 좋아서 참여하는 집단이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참여하거나 기타 이유로 참여하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 $p<0.05$ )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검도 시작 이유별 외적 동기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교, 건강과 체력, 외적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p<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t-test를 실시한 결과, 검도를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참여하는 집단이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참여하거나 기타 이유로 참여하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 $p<0.05$ )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재 검도참여 이유별에 따른 운동 참여동기 차이

검도 수련 참가자의 현재 검도 참여 이유별 내적 동기는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표 10. 현재 검도 참여 이유 따른 운동참여 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

|      |        |      |      |      |      |       |      |      |      |      |      |       |      |
|------|--------|------|------|------|------|-------|------|------|------|------|------|-------|------|
| 내적동기 | 기술발달   | 14.3 | 3.09 | 15.2 | 3.18 | 12.2  | 1.92 | 14.3 | 3.27 | 12.1 | 3.69 | 7.850 | .000 |
|      | 즐거움    | 19.6 | 3.18 | 20.3 | 3.49 | 13.8  | 4.52 | 19.4 | 3.53 | 18.4 | 3.62 | 9.530 | .000 |
|      | 성취감    | 10.5 | 2.42 | 11.2 | 2.45 | 10.7  | 1.50 | 10.6 | 2.62 | 9.23 | 2.91 | 4.535 | .601 |
| 외적동기 | 컨디션    | 20.1 | 2.85 | 20.0 | 3.45 | 17.7  | 2.83 | 19.5 | 2.99 | 18.5 | 3.40 | 2.968 | .020 |
|      | 사교     | 12.6 | 2.97 | 12.7 | 2.92 | 11.4  | 1.99 | 13.4 | 3.10 | 11.0 | 3.61 | 2.898 | .022 |
|      | 건강과 체력 | 14.4 | 2.57 | 13.9 | 2.67 | 12.2  | 1.64 | 13.4 | 2.97 | 12.4 | 2.81 | 4.939 | .001 |
|      | 외적과시   | 9.19 | 3.13 | 9.64 | 3.21 | 7.87  | 3.39 | 10.4 | 3.47 | 7.13 | 2.70 | 2.724 | .029 |
|      | 무동기    | 9.13 | 3.14 | 8.78 | 3.41 | 11.2] | 2.12 | 10.1 | 3.79 | 9.60 | 3.64 | 1.962 | .099 |

기술발달과 즐거움 요인은 운동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기타 순으로 나타났고, 성취감 요인은 운동이 좋아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현재 검도 참여 이유별 외적 동기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디션 요인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좋아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기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고, 사고 요인은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운동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과 체력 요인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기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고, 외적 과시 요인은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운동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현재 검도 참여 이유별, 무동기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기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좋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현재 검도 참여 이유별 내적 동기에 대한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발달, 즐거움과 성취감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발달, 즐거움과 성취감 요인의 유의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기술발달은 운동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기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고, 즐거움 요인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기타, 운동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취감 요인은 구체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현재 검도 참여 이유별 외적 동기의 평균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적동기에 있어서 외적 과시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컨디션 요인과 사고, 건강과 체력 그리고 외적요인이 유의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컨디션 요인은 건강을 위해서 검도에 참여하는 집단이 여가를 위하여 참여하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고 요인의 경우에는 어울리기 위해서 검도에 참여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강과 체력 요인은 건강을 위해서 검도에 참여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현재 검도에 참여 이유별 무동기의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검도 수련자가 왜 검도라는 운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어떤 동기로 검도를 하는 것일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운동 참여 동기

검도 수련 참가자의 성별 내적동기는 남자 수련자들은 내적동기의 하위요인인 기술 발달, 즐거움, 성취감요인에서 모두 여자 수련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일원변량 분석 결과 즐거움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술발달과 성취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성별 외적동기는 컨디션, 사교, 건강과 체력, 외적과시요인에서 남자 수련자들이 여자 수련자들 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컨디션, 사교, 건강과 체력, 외적과시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성별 무동기는 여자 수련자들의 9.55점으로 남자 수련자 8.9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운동 참여동기의 결과는 정용각(2002)의 선행에서 스포츠 참여는 다양한 이유들에 의한 성별, 연령별, 그리고 종목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건강과 관련된 요인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 외적과시와 사교동기에서는 남자가 높은 값을 보였다는 부분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별 운동 참여동기의 결과로 비추어 볼 때 남자 검도 수련 참가자는 내적동기인 즐거움으로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검도 수련 참가자가 연령별 내적동기는 기술발달은 41세 이상, 즐거움은 31-40세, 성취감은 21-30세가 높게 나타났다.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즐거움과 성취감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 $p<0.05$ )가 있었지만, 기술 발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즐거움과 성취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검도 수련 참가자의 연령별 즐거움과 성취감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세 이하가 41세 이상 집단보다 즐거움과 성취감 점수가 유의하게( $p<0.05$ ) 높았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연령별 외적동기는 컨디션과 건강과 체력에서 41세 이상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사교의 경우에는 31-40세에서, 외적과시는 20세 이하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컨디션과 건강과 체력에서 유의한 차이( $p<0.05$ )가 있었고, 사교와 외적과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컨디션과 건강과 체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균 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41세 이상의 집단이 20세 이하보다 컨디션과 건강과 체력이 유의하게( $p<0.05$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연령별 무동기는 20세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무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운동 참여동기의 결과는 선행연구인 정용각(2002)의 연령별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10, 20대는 성취감, 기술발달 등 내적동기와 사교, 외적과시 등 외적동기가 높은 반면, 30, 40대는 건강에 관련된 외적동기가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20, 30대 검도 수련 참가자는 즐거움과 성취감으로 30, 40대 검도 수련 참가자는 컨디션과 건강과 체력 요인으로 운동에 참여

한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교육수준별 내적동기는 기술발달과 즐거움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취감의 경우에는 고졸학력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일원변량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교육수준별 외적동기에서 컨디션과 건강과 체력은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의 점수가 높았고, 사교와 외적과시의 경우에는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의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외적동기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컨디션, 사교, 건강과 체력, 외적과시요인들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교육수준별 무동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운동 참여동기의 결과로 비추어 볼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술발달, 즐거움, 그리고 성취감으로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 2. 검도수련 참여정도에 따른 운동 참여 동기

검도 수련 참가자의 주당 참여빈도별 내적동기는 매일 참가하는 집단이 요인별 점수가 높았으며, 주당 검도 참가 빈도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기술발달과 성취감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검도에 매일 참

여하는 집단이 주당 2-5회, 주당 1회, 월 1-2회 참여하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주당 검도 참가 빈도별 외적동기에서 사교, 건강과 체력, 외적과시 요인은 거의 매일 참여하는 집단이 주당 2-5, 주당 1회 참여하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냈다. 참가 빈도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외적과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컨디션, 건강과 체력, 외적과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참가 빈도별 무동기는 주당 1회 참여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참여 빈도별 운동 참여동기의 결과로 비추어 볼 때 기술발달과 성취감, 외적요인이 매일 참여하는 집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운동 수련자들의 운동 기간별 내적동기는 기술발달 요인이 1-3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즐거움 요인은 1년이하, 성취감 요인은 3-6년 검도에 참여한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세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운동기간별 외적동기는 컨디션, 사교, 건강과 체력 요인이 3-6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외적과시는 1-3년 참여한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운동기간별 외적동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자들의 운동참여 기간별 무동기는 6년이상 참여해온 집단이

9.6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일원변량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시간별 운동 참여동기의 결과는 검도 수련 참가자의 참가 기간별 운동참여 동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검도 수련자들의 운동 시간대별 내적동기는 기술발달 요인 기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즐거움 요인은 아침 7-8시, 성취감 요인은 오후 8-9시대가 검도에 참여한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의 운동시간대별 외적동기는 컨디션, 사교가 오후 8-9시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건강과 체력 요인은 오후 7-8시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외적과시는 기타에 참여한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운동시간대별 외적동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자들의 운동시간대별 무동기는 아침 6-7시에 참여해온 집단이 9.4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일원변량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시간대별 운동 참여동기의 결과로 비추어 볼 때 검도 수련 참가자의 운동시간대별 운동참여 동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 3. 검도수련 시작에 따른 운동 참여동기

검도 수련 참가자들이 검도를 처음 시작

한 주된 이유별 내적동기에서의 기술발달, 즐거움, 성취감 요인 모두 운동이 좋아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내적동기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해 본 결과 기술발달, 즐거움, 성취감 요인 모두 구체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들의 검도 시작 이유별 외적동기는 컨디션 요인은 운동이 좋아서, 사교요인은 어울리기 위해서, 건강과 체력요인은 운동이 좋아서, 외적과시요인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검도 시작 이유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컨디션 요인만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교 요인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검도를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집단이 여가를 위해서 참여하거나 기타 이유로 참여하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들의 검도 시작이유별 무동기는 여가를 위해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시작이유별 운동 참여동기의 결과는 처음 검도를 참여하는 동기가 내적동기, 외적동기요인 모두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검도 수련 참가자들의 현재 검도 참여 이유별 내적동기에서의 기술발달, 즐거움, 성취감 요인은 운동이 좋아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참가 이유별 내적동기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기술발달, 즐거움,

성취감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적요인의 사후검증을 통하여 구체적인 차이의 소재를 파악해 본 결과 요인들의 점수는 운동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어울리기 위해서, 여가를 위해서인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도 수련 참가자들의 현재 검도 참여 이유별 외적동기는 컨디션, 건강과 체력 요인은 건강을 위해서, 사교요인은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외적과시요인은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현재 검도 참여 이유별 외적동기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외적동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평균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컨디션 요인은 건강을 위해서 검도에 참여하는 집단이 여가를 위해서 참여하는 집단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요인의 경우에는 어울리기 위해서 검도에 참여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검도 수련 참가자들의 현재 검도 참여 이유별 무동기는 어울리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검도 참여 이유별 운동 참여동기의 결과로 비추어 볼 때 현재 검도 수련 참가자들은 운동이 좋아서 참여한다고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검도 수련 참가자들의 운동참여동기를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참가빈도별, 참가기

간별, 검도시작이유별, 현재 검도를 하는 이유별로 분석하여 참여동기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별 운동참여 동기는 내적동기의 즐거움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자 수련 참가자들이 여자 수련 참가들보다 높게 나왔으며, 다른 요인들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2. 연령별 운동참여 동기는 기술발달 요인은 41세 이상이 점수가 높았고, 즐거움 요인은 31-40세, 성취감은 21-30세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컨디션, 건강과 체력 요인은 20세 이하, 사교의 경우 21-30세, 외적과시 요인에서는 20세 이하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3. 교육수준별 운동참여 동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4. 참가빈도별 운동참여 동기는 주당 참가빈도가 높을수록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운동기간별 운동참여 동기는 기술발달 요인이 1-3년, 즐거움 요인이 1년 이하, 성취감 요인이 3-6년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컨디션, 사교, 건강과 체력 요인은 3-6년, 외적과시 요인은 1-3년으로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운동시간대별 운동참여 동기는 대체로 오후 8-9시간대의 참여집단이 아침 6-7시, 아침 7-8시간대의 참여 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고, 동기별로 시간대가 다양한 결과를 나타냈다.

7. 검도 시작 이유별 운동참여 동기는 사교요인에서 검도를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서 참여하는 집단이 여가를 위해서 참여하거나 혹은 기타 이유로 참여하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8. 현재 검도 참여 이유별 운동참여 동기는 기술발달, 즐거움, 성취감 요인은 운동이 좋아서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컨디션과 건강과 체력요인은 운동이 좋아서, 사교요인은 어울리기 위해서, 외적과시요인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여가 시 검도 수련 참가자의 참여동기를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검도 수련 참가인들은 성별, 연령별, 운동 시간별, 시작이유별, 참여 이유별에 따라 운동참여 동기요인이 다르므로 검도 지도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도할 때 생활체육으로서 검도를 즐기는 검도 인구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스포츠 참여는 생활의 일부분이며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표현하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정희준, 2001 Beal, 1995; Dworkin & Wachs, 1998).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검도 참여동기 중 내적요인인 하위요인의 즐거움요인과 기술발달요인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활동과정에서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도 지도자의 연구가 필요하며, 무동기자들의 참여동기 분석과 검도 참여자의 심리적 이익에 대한 심층적 분석으로 검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영달(1978). 검도-문교부 체육자료 총서. 43권, 서울: 서울신문사.
- 김인범(2004). 효율적인 검도장 경영을 위한 검도 수련자의 도장 선택요인과 만족도 비교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재일(1994). 검도총서. 경희대체육과학대검도연구실.
- 이종림(1995). 초보자를 위한 검도교실. 서울: 삼호미디어.
- 이종림(1995). 검도. (주)한국문원.
- 정용각(2002). 여가운동 참가자의 스포츠 참여동기, 각성추구, 정서의 요인이 스포츠 몰입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정용각(1998). 스포츠 참여동기의 탐색적 요인분석. 한국스포츠 심리학회지, 9(1), 113-129.
- 정희준(2001). 스포츠영웅의 조건: 그들의 등장과 몰락의 사례를 통한 이데올로기해석. 한국 스포츠학회지, 14(1), 257-272.
- Beal, B.(1995). Disqualifying the official: An exploration of social resistance through the subculture of skateboarding. *Sociology of Sport Journal*, 12, 252-267
- Vallerand, R. J., & Bissonnett, R.(1992).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al styles as predictors of behavior :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

박동훈 · 이세영

*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99-620.

접 수 일 : 2006. 7. 30.  
심사완료일 : 2006. 8. 8.